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본궤도'

시제품 제작·인증센터 구축·전문인력 양성 등 성과
통합 워크숍…미래 모빌리티 육성 전략·현황 공유

광주시의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시제품 제작과 성능 검증, 지원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렀던 사업이 본격적인 사업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광주시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은 19~20일 제주 메종 글래드에서 '2026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통합 워크숍'을 열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57억원(국비 397억원·시비 120억원·민자 14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미래차국가산단과 빛그린국가산단, 진곡산단 일대 727만2727㎡(220만평) 규모의 미래차 산업 삼각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행 핵심부품 국산화와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기업·기관 70여곳이 참여해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LG이노텍, 한국알프스, DH오토리드, 에스오에스랩, KT, 에니트 등 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19일에는 세부 과제별 추진 현황과 올해 계획이 발표됐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에스오에스랩이 개발 중인 '200m급 장거리 라이다' 기술이 소개됐다. 자동차 앞유리 안쪽에 부착 가능한 형태로, 신뢰성을 높인 ASIC 드라이버와 실시간 데이터 확인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해 제품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은 19~20일 제주 메종 글래드에서 '2026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통합 워크숍'을 열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DH오토리드는 자율주행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운전자에게 즉시 운전권을 넘길 수 있는 '수납형 조향휠' 개발 현황을 공개했다. 현재 1차 조향휠 조립체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으며 차량 장착을 통한 안정성과 조작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에니트는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장치인 '로드사이드 유닛(RSU)' 개발 상황을 발표했다. 장비 소형화와 저전력 기술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올해 안에 시제품 제작과 차량 통신장치(OBU) 연동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 안전·성능평가 시험장 구축사업'이 소개됐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자율주행 안전·성능평가 인증센터는 오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21종의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해 지역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 검증과 인증을 지원하게 된다.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광주산학융합원이 '자율주행차 소부장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2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자동차 부품 제조 설계 소프트웨어 활용과 제조공정 비전 AI 적용, 생성형 AI 기반 공정 최적화 등 실무·연구개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워크숍 둘째 날인 20일에는 '자율주행 핵심부품 사업화 전략 자문위원회'가 열려 판로 개척과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동향 등이 논의됐다.

이동현 광주시 미래차산업과장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이 3차년도에 접어들면서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 인력양성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은 19일 대구시 일대에서 iM뱅크와 함께 양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 달빛동맹 교류 행사'를 실시했다.

광주은행·iM뱅크, '달빛동맹' 교류 행사

대구 근대골목 환경정화·역사관 견학하며 상생 다져

광주은행은 19일 대구시 일대에서 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강정훈)와 함께 양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 달빛동맹 교류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 광주은행과 iM뱅크(옛 DGB대구은행)가 체결한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영호남 금융권의 화합과 지역 상생을 상징하는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양사 임직원들이 전남 담양 죽녹원을 찾아 교류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올해는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상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올해 행사에는 광주은행과 iM뱅크의 봉사단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오전에는 대구의 대표 관광 명소인 근대골목 일대에서 '쓰담 투어'를 진행했다.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환경정화 활동으로, 봉사단원들은 청라언덕, 선교사주택길, 3·1만세운동길 등을 함께 걸으며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이어 근대 대구의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구근대역사관'을 방문해 대구 지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932년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건립된 역사적 공간에서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은행의 임직원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지역 간 벽을 허물고 동반 성장을 위한 소통의 폭을 넓혔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주·대구 간 교류를 통해 영호남 금융권의 협력과 상생의 의미를 깊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LH, 순천도시첨단산단 상업·시설용지 공급

7필지 경쟁입찰…내달 1~2일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총 7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업용지는 필지당 면적 1460㎡~1664㎡, 공급예정금액 20억원대(3.3㎡당 500만원대)이고, 지원시설용지는 필지당 면적 782㎡~791㎡, 공급예정금액 6억원대(3.3㎡당 260만원대)이다.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대금납부조건은 2년 분할납부(유이자)이다.

지원시설용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상업용지의 경우에는 추가로 판매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순천시 야흥동 일대에 개발되는 전남 최초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순천시 도심과 가깝고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와 순천-완주고속도로 순천IC를 통한 교통 접근이 용이하다.

공고는 PC(LH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와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으로 확인 가능하며,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2일 오후 4시까지다.

개찰은 다음달 2일 오후 4시 30분, 낙찰자 발표는 오후 5시 30분 이후에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062-360-3174)로 문의하면 된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광주은행, 말바우시장서 찾아가는 금융상담

포용금융센터-광주시-서민금융진흥원 맞춤 지원

광주은행은 20일 생업으로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찾아가는 복합지원 현장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지원 활동은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를 비롯해 광주시,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금융·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출 증대 전략 및 점포 운영 노하우 등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고금리 시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상담 및 대출 안내 등이 이뤄졌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와 참여기관들은 이번 말바우시장 지원 활동을 시작으로 주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사업은 지난 2월 누적 상담 1000건을 돌파하며 지역 밀착형 금융지원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경영현장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을 반영해 마케팅, 경영진단, 전문분야(세무·법률), 점포 운영 등 총 4개 분야 컨설팅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은행연합회가 주관한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3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는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부문에서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기관 포상을 수상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지난 6년간 약 1500건의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공공임대 농지매입' 역대 최대 규모

1조6138억원 전년비 68%↑…매입 가능범위 완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이를 통해 농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은 1조6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규모다.

공사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그간 누적된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신규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전수조사와 특별정비기간이 시작돼 농지 매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접수 물량에 대해서도 매입을 원활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원활한 농지매입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매입 가능 범위도 넓혔다. 청년농 수요가 높은 밭과 과수원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우, 기존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공사는 지난 4월 지침개정을 통해 경지정리 또는 밭 기반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밭·과수원이더라도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을 통해 배수시설이나 농로 등 기본적인 영농 기반이 갖춰지면 매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해 읍면 계획관리지역 농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매입을 허용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도 적용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 가능한 우량농지를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 매각을 고민하는 농지 소유자라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도할 수 있다"며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구조 개선에도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NH농협손해보험은 최근 지역 농업인 보호와 농축협 상생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완도농협에 '위더스(With-us) 상'을 수여했다.

NH농협손보, 완도농협에 '위더스상' 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농업인 실익 증진 공로 인정 받아

NH농협손해보험은 최근 지역 농업인 보호와 농축협 상생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완도농협에 '위더스(With-us)상'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더스상'은 NH농협손해보험이 농축협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제정한 상으로, 농업인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보험사업을 통해 농협 가치 제고에 기여한 우수 농축협에 수여된다.

이날 수여식에는 서윤종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과 홍현실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장, 최대곤 농협 완도군지부장, 김미남 완도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완도농협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농업인 보호를 위한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미남 조합장은 "이번 위더스상 수상은 조합원들의 신뢰와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NH농협손해보험과 긴밀히 협력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윤종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완도농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축협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